



기아차 광주공장 증설 年62만대 생산체제로

1500억원 투입...화성공장 규모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2013년부터 올해보다 20% 이상 생산규모를 늘려 연간 62만대의 차량을 생산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8면)

기아차 광주공장은 7일 노사가 참여한 고용안정소위원회를 열어 현재 50만대 생산체제를 2013년부터 12만대 늘린 62만대 생산체제로 확대하는 내용의 증산계획안을 노조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회사 측은 증산계획에 따르면 광주1공장은 카렌스 후속모델(프로젝트명 RP)을 2012년 말 투입해 현재 20만대 생산규모를 유지하고, 스포티지R과 쏘울을 병행 생산하는 광주2공장은 생산능력을 현재 시간당 42대에서 66대로, 봉고트럭을 생산하는 광주3공장은 시간당 21대에서 23대로 각각 늘린다.

이렇게 되면 1공장은 연 20만대 생산이 유지되고, 2공장은 20

만대에서 31만대로, 3공장은 10만대에서 11만대로 각각 늘어 2013년부터 광주공장은 62만대 생산공장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를 위해 기아차는 1500억원을 들여 2공장과 사원주차장 일부에 생산시설을 증축하는 공사를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공장의 연산 62만대 생산규모는 기아차 최대 공장인 경기도 화성공장(62만대)의 생산규모와 맞먹는 것으로, 광주공장이 화성공장과 더불어 기아차를 대표하는 공장으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 2009년 32만대 생산에서 쏘울과 스포티지R의 잇따른 성공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며, 4년만에 2배 가까이 성장을 하게 됐다. 연간 매출도 1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복경기자 jwpark@kwangju.co.kr



7일 오전 광주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앞에서 예산 삭감에 반발한 광주 남구 주민과 빗고 노인복지재단 자치위원회 소속 노인들이 시의회 사무직원의 봉쇄를 뚫고 예결위 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예산 깎지말라” 주민들 시의회 점거

광주 사상 초유 예결위 파행...구청 공무원·시 출연기관 직원들도 가세

몸싸움속 203억 삭감 의결

회의장 점거 및 시의원 출입 봉쇄 등 파행으로 일궈졌던 2011년도 광주 시 본 예산이 7일 광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에서 의결됐다. 하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시의회 예결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이면서 예산안 의결이 지연되는 등 사상 초유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3면)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이틀간의 파행 끝에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시 내년도 예산 3조240억7000만원 중 203억4000여 만원을 삭감한 '2011년도 광주 시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이복경 행정부시장 등 시 간부들은 예결위가 일반적으로 예산을 처리한 다며 의결과정에 불참했고, 예결위는

주민들이 예결위 회의실을 점거하고 농성중인 상황에서 회의 속개 5분 만에 전격적으로 의결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주민들이 예결위 원장 자리에 놓인 의사봉을 빼앗으려 고 위원장 석으로 돌진했고, 의회 사무직원들이 이를 제지하기 하는 등 심한 몸싸움을 벌였다.

예결위는 이날 상임위 심사에서 삭감돼 논란이 됐던 46개 사업 240억7000만원 중 ▲남구청사 리모델링 관련 효용을 냉난방기 보급 22억5000만원 ▲남구청사 LED조명 보급사업 7억5000만원 ▲도시철도공사 운영비 19억원 ▲광주 축협 유통시설 등 9억7000만원 등 총 4천 58억7000만원을 부활했다.

반면, 문화재단 기금 10억원과 광주 폴리 10억원, 법 질서 지키기 홍보예산 3000만원 등은 추가로 삭감했다.

이와 함께 내년도 광주시교육청 예산 40억2000여만원도 삭감했다.

한편, 광주시의회 예결위는 전날 밤 9시에 예산 의결을 하려 했지만,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남구 주민들이 예결위 회의실 입구를 봉쇄하면서 이날 오전 8시에 회의를 속개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남구 지역주민들과 빗고 노인복지재단 자치위원 등 50여명이 예산 삭감 반대를 주장하며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해 의결장을 점거했다.

이들은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예산 부활”을 외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농성 현장에는 광주 시 출연기관 소속 임직원들까지 가세해 논란을 빚었다.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예결위가 열리지 못한 것은 광주시의회 개원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의회 관계자는 “시민이 뽑은 시의원들의 정당한 권한을 인정해줘야 하고, 권한 행사가 잘못됐을 땐 선거 때 심판하면 된다”며 “물리력을 동원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남구 지역주민들과 빗고 노인복지재단 자치위원 등 50여명이 예산 삭감 반대를 주장하며 예결위원회 회의장으로 진입해 의결장을 점거했다.

이들은 예산삭감에 반대하는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예산 부활”을 외치며 항의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의회 사무처 직원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였으며, 농성 현장에는 광주 시 출연기관 소속 임직원들까지 가세해 논란을 빚었다.

광신대학교
2012학년도 학부 신입생모집
정시모집 '가군'
[원서접수] 2011.12.22(목)~27(화)
www.kwangshin.co.kr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한나라 최고위원 3명 동반사퇴

홍대표는 “재신임 물겠다”

한나라당 유승민·남경필·원희룡 최고위원 3인이 7일 전격적으로 동반 사퇴한 반면 홍준표 대표는 일단 동반 사퇴를 거부하면서 의원들에게 재신임을 물어 당이 극심한 내용에 휩싸이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씨저권에서는 홍 대표의 사퇴 여부를 떠나 사실상 ‘홍준표 체제’ 붕괴로 해석하는 시각이 우세하다. 특히 당내 최대 주주이자 유력 대안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당 전면에 복귀할 것으

로 예상돼 정국은 예측이 불가한 격랑 속으로 빠져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도권 소장과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대로는 내년 총선을 해보나 마나”라는 위기감이 커지면서 당해체론과 재장당론 등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에 대해 홍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최고위원 3명의 사퇴에 대한 충정을 이해하고 해신의를 받아들인다. 그러나 최고위원 의원들의 판단은 사표를 반려하지는 것”이라며 사실상 사퇴를 거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롯데제이티비 롯데제이티비는 롯데그룹의 유일한 여행사입니다. 여행문의 1577-6511

무안 출발상품 예약자 특전! **북경/상해 엔제리너스 커피쿠키 증정** 선착순 100대!

북경 *365일 특가!
북경+만리장성, 서커스 4일/5일 259,000원
*세계 자연유산 탐방!
상해/장가계(원가계, 천문산) 4일/5일 899,000원

유럽 롯데홈쇼핑 인기상품 시리즈
터키완전일주 한정상품 9일 1,490,000원
동유럽 4국 프라하 아랑크리시마 7일 1,690,000원

동남아 11/25 방영 롯데홈쇼핑 인기상품
발리 오션블루 풀빌라 5일/6일 899,000원
푸켓 아쿠아마린 노팅/기부 자유시간 7일 799,000원

남태평양 롯데 자이언츠가 떴다! 단 2회 1/25, 26
사이판 자이언츠 드림팩 패밀러 PIC 골드 4/5일 899,000원

미주 롯데홈쇼핑 인기상품 시리즈
하와이 일주 6~7일/6일 999,000원
미국 서부 완전 일주 LA 연안 무료 7일 1,590,000원

일본 1/3 오사카 단 1회 Join ROUTE 10
오사카 나라 교토 아라시야마 온천 3일 549,000원
북해도 토마루 리조트 4일 1,190,000원